**이곳은 나에게, 이곳이 나의**

극동대학교 영상제작학과 영화제작2

감독 이상호

.

**로그라인**

낡은 빌라 반 지하에 사는 혜지가 담배로 인한 이웃 주민과의 갈등

**등장인물**

혜지(20대 중반의 여성)

아저씨(30대 후반의 남성)

경찰관 1,2

**시나리오**

S#1. 혜지의 집 안 창문 – 오후 해가 지기 직전

지은지 20년은 더 되어 보이는 빌라 반 지하에 위치한 혜지의 집 안.

혜지는 담배를 피기 위한 창문 앞 발판을 밟고 창문을 연다.

쇠창살과 아스팔트 바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깥을 바라보며 SNS에 올라오는 사람들에 일상을 보며 괜히 비교해보다가 담배에 불을 붙인다.

그러던 중 걸어오던 낯선 이의 슬리퍼 차림에 발걸음이 혜지네 집 창문 앞에 잠시 멈춰 서다가 사라진다.

혜지

(SNS에서 보는 이미지와 자신의 집 앞 풍경을 괜히 대조해보며 한숨과 담배연기를 내뱉는다.)

하 …

혜지의 집 창문 밖으로 술에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걸어가다 침을 바닥에 뱉고 지나가는 모습이 혜지의 시야에 들어온다.

혜지

(창문 밖을 보며)

동네 수준 하고는…

혜지가 담배 하나를 다 태우고 다른 하나를 더 꺼내어 입에 가져다 대고 불을 붙이려는 순간 혜지의 집 현관문이 두들겨진다. 그 소리를 듣고 혜지가 안전 고리가 걸려져 있는 채로 현관문을 반만 연다.

혜지

(귀찮다는 듯이 퉁명스럽게)

누구세요

아저씨

(중 저음에 점잖은 목소리로 단호하게)

위층인데요. 그 담배 냄새가 많이 올라와서 그런데 자제 좀 부탁드려요

혜지

(밝아 보이지 않는 표정으로 귀찮다는 듯 대답하고 문을 닫는다.)

아 네

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혜지

혜지

(짜증난 말투)

하 별게 다 난리네

Fade out.

Title fade in.

이곳은 나에게

Title fade out.

S#2. 혜지의 집 안 – 저녁 Fade in.

혜지가 침대 위에 누워 이어폰을 꽂고 핸드폰을 본다.

그러던 중 창가 쪽으로 고개를 돌려 창을 바라보다가 이어폰을 빼고 담배를 챙겨 침대에서 일어난다.

창문에 다다른 혜지는 천천히 담배를 꺼내어 입에 물고 불을 붙이고, 창 밖을 바라본다.

그러던 중 위에서 창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, 조금 있다가 위 층 아저씨가 혜지의 집 창살을 힘을 주어 두드린다. 툭툭

아저씨

(허리를 굽힌 채 창살을 두드리며 화난 말투)

저기요! 제가 분명 집에서는 담배 좀 자제해 달라고 했는데

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?

혜지

(짜증과 화가 섞인 목소리로)

하… 그렇다고 남의 창문을 막 두들기세요?

그리고 내가 내 집에서 담배 피겠다는데 뭔 상관인데요?

혜지 담배 한 모금을 더 하고 담배 꽁초를 창 밖에 버리고 창문을 세게 닫아버린다.

아저씨

(창살을 다시 두드리며 조금 큰 목소리로 화를 낸다.)

이런 싸가지 없는 년을 보았나

너 이리 좀 나와봐, 야 빨리 안나와!

혜지

(뒤돌아서 안 쪽으로 들어가며)

뭐라는 거야

부엌에서 컵에 물을 따라 마시는 혜지

혜지의 현관문 앞으로 발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혜지의 집 앞에 멈춘다.

곧바로 강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화가 난 아저씨의 소리가 들린다.

아저씨

(문을 두드리며 화가 난 목소리로)

야 임마! 일로 안나와?

빨리 문열어!

물컵을 내려놓고 문 앞으로 가는 혜지

혜지

(점점 격양 되는 목소리로)

하… 미쳤어요?

이렇게 문 두들기고 이러는 거 다 주거 침입이거 아세요?

그리고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!

아저씨

(어이가 없다는 듯이 화를 낸다.)

뭐?! 주거침입? 참나 ..

그래 너가 경찰이 와야 정신차리지

어! 빨리 안나와?

혜지

(아저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맞받아치며 뒤돌아서 침대로 간다)

아 경찰 부르던가~ 진짜 지랄이야.

혜지 침대에 누워 이어폰을 꽂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잠시 눈을 감는 혜지.

S#3 혜지 집 현관문 앞 – 저녁

아저씨는 계속하여 혜지의 집 문을 두드리며 화를 내고 있다.

이 때 1층 불이 켜지고 누군가 올라가자 아저씨는 눈치를 보고는 밖으로 나오면서 전화를 건다.

S#4 혜지의 집 현관문 앞 – 저녁

경찰1이 혜지의 집 현관문을 두들긴다.

경찰1

(문을 두드리며 점잖은 말투로)

계신가요. 경찰입니다.

신고 받고 왔으니 잠시 문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(아무 반응이 없자)

계세요~

S#5 혜지의 집 안 – 저녁

이어폰을 그대로 꽂고 음악을 들으며 침대에 누워 있는 혜지

S#6 혜지의 집 빌라 앞 – 저녁

아저씨와 경찰2가 빌라 앞에 서있고 경찰1이 빌라에서 나온다.

 경찰1

 (빌라 밖으로 나오며)

 선생님 안에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요?

아저씨

(어이없다는 듯이)

아니 내가 아까부터 여기 있었는데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.

안에 있다니까?

(창문을 발로 차며)

야! 빨리 안나와?!

경찰2

(아저씨를 말리며)

선생님 이러시면 안됩니다.

S#7 혜지의 집 안 – 저녁

혜지

(소리가 나는 창문 쪽을 바라보고 이어폰을 한쪽을 뺀다.)

하.. 진짜… 왜 그러는 거야

S#8 혜지의 집 빌라 앞 – 저녁

경찰 두 명과 아저씨 그리고 혜지가 빌라 앞에 모여있다.

아저씨는 혜지에게 삿대질을 하며 표정이 상기된 채 화를 내고 있다.

경찰관2

(아저씨와 혜지를 번갈아 쳐다보며)

선생님은 일단 진정 좀 하시고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.

그 동네 주민끼리 얼굴 붉히면 안좋잖아요

서로 사과하시고 좋게 넘어갑시다.

아저씨

(마음을 가다듬는 듯 하늘을 한 번 쳐다보고 한숨을 내쉰다.)

하…

쯧… 알았습니다.

(혜지를 보며)

거 다음부터는 조심 좀 하고 삽시다.

혜지

(뻔뻔하고 퉁명스럽게)

제가 왜요?

아저씨가 먼저 욕하고 찾아와서 문 두들기고 하는데

제가 잘못한 건가요?

오히려 아저씨가 피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?

아저씨

(어이 없다는 듯이 화내며)

뭐? 피해?

누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적반하장이야 !

어! 내가 집에서까지 담배냄새를 맡아야겠어?!

혜지

(팔짱 끼며 똑같이 화낸다)

아니 내가 내 집에서 담배 피겠다는데 아저씨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!

불만 있으면 아저씨가 창문을 닫든가

경찰관 2

(답답하듯이)

하… 자꾸 이러시면 두 분 다 서에 가셔서 해결 보셔야 하는데

괜찮으시겠어요?

경찰에 말을 들은 혜지와 아저씨가 살짝 머뭇거린다.

경찰관 2

(혜지와 아저씨를 쳐다보며)

시간도 늦었는데 여기서 그만 끝내시고 들어가시죠.

아저씨와 혜지가 서로 째려보다 아저씨가 먼저 고개를 살짝 돌리고는 다시 혜지를 본다.

아저씨

(머리를 살짝 긁으며)

거 문 발로 차서 미안하고 서로 피해는 끼치지 맙시다.

혜지

(째려보던 눈을 풀고 한숨 쉬며)

하… 알았습니다. 저도 죄송하게 됐네요.

(경찰을 보며)

그럼 이제 들어가도 되죠?

경찰관 1

(수첩을 들고 펜을 꺼내며)

들어가시기 전에 신고 관련해서 기록을 해야 해서 그러는데

신분증 좀 보여 주세요

혜지와 아저씨의 신분증을 보며 받아 적는 경찰1

S#9 빌라 안 계단 – 저녁

혜지가 계단을 내려가다 현관문 앞에서 멈칫한다.

그러고는 뒤를 돌아 다시 계단을 올라간다.

S#10 빌라 옥상 – 저녁

옥상 문을 열고 나오는 혜지. 난간으로 걸어간다.

주머니에서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고 담배 하나를 꺼내어 입에 문다.

담배를 입에 문 채 한숨 한 번 쉬고 불을 붙인다.

담배를 피며 야경이 보이는 먼 곳을 바라본다.

어두운 밤, 밝게 빛나는 건물들의 빛들이 보인다.

담배를 한 모금 더 피고 난간 아래로 꽁초를 버린다.

S#11 혜지의 집 창문 – 저녁

혜지의 창문 앞으로 담배꽁초가 떨어진다. 떨어진 담배꽁초 근처에는 버려진 꽁초 몇 개가버려져 있다.

Fade out.

Title in

이곳이 나의

Title out.

FIN.